

『野草』의 꿈속 상징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김동진**

목 차

1. 서론
2. 루쉰이 꿈 형식을 선택한 이유 및 효과
3. 꿈속 상징 분석
 - 1) 자아성찰과 죄의식
 - 2) 속죄를 위한 적과의 동귀어진
 - 3) 흔들리는 속죄의식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루쉰의 산문시집인 『야초(野草)』에 수록되어 있는 꿈 관련 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꿈과 시 간의 유사성, 아울러 루쉰의 글이 꿈이란 형식으로 창작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고찰하여 루쉰이 『야초』의 시들을 지을 때 꿈이란 매체를 채용한 이유와 그의 의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꿈을 읊은 시들에 대해서 심리학의 꿈 이론을 참고하여 꿈의 내용과 꿈속의 상징 및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독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성찰을 통한 죄의 인지와 그에 따른 죄책감, 그리고 속죄의 결의라는 주제가 루쉰의 시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은 문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의거함으로써 루쉰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인 “자

* 이 연구성과는 2020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아반성”과 “회심,” 그리고 “속죄” 등을 『야초』의 시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루쉰의 창작에 대한 학제 간 또는 초학문적 연구가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키워드: 심리학, 꿈, 루쉰, 야초, 속죄, 죄책감

1. 서론

인간은 인생의 1/3이나 되는 시간을 수면으로 소비한다.¹⁾ 하지만 그 시간이 아까워서인지, 인간은 하프너의 주장처럼, 깨어 있는 동안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꿈을 꾸는다.²⁾ 중국 민초의 사상 개혁과 봉건 제국주의의 타도를 위해 일생을 분투한 문학가 루쉰(魯迅) 역시 잠자는 동안에도 투쟁의 삶을 멈추지 않았고, 꿈속에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루쉰의 산문시집인 『야초(野草)』는 총 24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의 작품이 루쉰의 꿈을 묘사하고 있다. 이 꿈들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지만, 아쉽게도 許靈의 「魯迅《野草》說夢詩的構夢特色」, 海萍麗의 「黑暗中的顛覆與狂歡--試析魯迅《野草》中的夢」, 韓冰의 「夢與醉的黑暗世界--論《野草》」, 劉秀芳의 「論魯迅《野草》中的夢」, 蔡家俊의 「《野草》中夢的類型與內涵」 등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획일적으로 꿈을 단순히 사회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고, 꿈이라는 형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문학적 도구로서의 꿈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꾸는 꿈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꿈 관련 이론을 사용해 분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지기수인 심리학 이론 가운데서 오직 “꿈은 억눌려진 소원의 위장된 성취이다.”³⁾와 “꿈들에 왜곡된 형태로

1) 스티븐 라비지 저, 이경식 역, 『루시드 드림』, 서울: 북센스, 2008, 22쪽.

2)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기태 역, 『꿈의 해석』, 서울: 선영사, 2005, 9쪽.

나타나는 소원은 무의식에서 비롯된다.”⁴⁾는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야초』에서 서술한 꿈의 편면적인 특징만을 개괄하였고, 루쉰이 현실 속에서 추구했던 목표와, 그와 적대했던 특정세력,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야초』의 꿈속 이미지에 일일이 대입하여 해석하는 편협적인 분석을 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야초』에서 서술하고 있는 꿈들은 이하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단순한 의사전달의 매개가 아니라 실제로 루쉰이 꾸었던 꿈일 가능성이 있다. 첫째, “성인의 꿈은 대체로 서로 무관해 보이는 기묘한 내용으로 가득한데,”⁵⁾ 『야초』에서 구현된 몽경(夢境) 속에도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대거 출현하고, 사후(死後) 체험과 개가 말을 하는 것처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 둘째, “꿈은 주로 친사회성보다는 공격성을, 행운보다는 불행,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담고 있다”⁶⁾는 Domhoff의 주장과 “꿈에서의 감정과 분위기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쾌활하기보다는 우울하며, 평화롭기보다는 난폭한 경향이 더 많다”⁷⁾는 애크로이드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야초』의 꿈들은 주로 암울한 환경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셋째, “사람은 렘수면(REM, Rapid Eye movement)을 취할 때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근육이 쉴룩거리며, 육체가 무력해지고, 뇌는 고도로 활성화되어 꿈을 꾸다.”⁸⁾고 하는데, 『야초』의 꿈 꾸는 화자가 적 앞에서 보여준 죽음, 도망, 신음 등의 무력한 모습들은 렘수면 중에 겪게 되는 육체의 무기력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꿈에 부합하는 특징들 때문에, 『야초』의 꿈이 루쉰이 실제로 경

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정명진 역, 『꿈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7, 120쪽.

4) 위의 책, 157쪽.

5)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정명진 역, 앞의 책, 39쪽.

6) G. William Domhoff 저, 유미숙 등 역, 『꿈의 과학적 탐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1, 33쪽.

7) 애릭 애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꿈 상징 사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102쪽.

8) 스티븐 라비지 저, 이경식 역, 앞의 책, 33쪽.

험한 꿈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한, 설령 진정한 꿈이 아니더라도, 루쉰이 실제로 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살려서 꺾진하게 꿈을 체현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꿈을 순전히 하나의 글쓰기 형식이라고 간주하고 연구한다면, 루쉰의 의도와 이미지 속에 숨어 있는 의미의 일부분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본고는 『야초』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꿈을 읊은 「죽은 불(死火)」, 「개의 반박(狗的駁詰)」, 「잃어버린 좋은 지옥(失掉的好地獄)」, 「묘비명(墓碣文)」, 「무너진 선의 전율(頹敗線的顫動)」, 「논점을 세우다(立論)」, 「그림자의 작별(影的告別)」, 「죽은 후(死後)」 이 여덟 편의 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안의 특정 이미지와 상징들을 문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고찰하여, 작품들에 편재하는 핵심 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시대 및 창작 배경 등 외부적인 요소에만 구애받지 않고, 꿈의 전반적 맥락과 심리학적 해몽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도모할 것이므로, 본 연구가 루쉰의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루쉰이 꿈 형식을 선택한 이유 및 효과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에 앞서, 루쉰의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가 꿈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와 그 꿈들이 진정성을 갖는 원인, 그리고 꿈이 루쉰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여러 번 경험하여 잘 기억할 수 있는 일과는 다르게, 꿈의 형상은 대체로 단 한 번의 체험이므로, 꿈은 쉽게 망각된다.⁹⁾ 한편 루쉰은 자신의 글을 “무용지용(無用之用)”의 글, 또는 혁명을 이룬 뒤 후인들에게 잊히는 글이라고 스스로 자리매김하였는데, 메시지를 던져 준 뒤 망각되는 꿈은 목적을 이룬 뒤 망각되는 것을 지향하는 루쉰의 글의 형식으로서 매우 적합하다. 그 다

9)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홍성표 역, 앞의 책, 33-34쪽.

음으로 “꿈의 생각들은 시인들의 비유적인 언어처럼, 풍유와 은유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¹⁰⁾ “꿈은 환유를 기반으로 한 개념적 융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¹¹⁾ 시어(詩語)가 함축적이고 상징성이 강하며, 동형구조와 비유를 대량 사용하는 시와 꿈은 공통점이 많다. 게다가 “꿈은 놀라운 시를, 훌륭한 우의를, 유례없는 유머를, 값진 풍자를 가지고 있어서,”¹²⁾ 산문시에서 꿈이란 형식을 채용하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영향을 받은 풍자적인 필치¹³⁾와 독창적인 익살스러움 같은 루쉰 글의 주된 강점을 적재적소로 담아낼 수 있다. 이밖에도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세계의 여러 현상의 효과를 그 현상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본질의 가장 뜻 깊은 이해 속에서 강화하는데, 두려운 것을 가장 무시시킨 형태로, 우스꽝스러운 것을 철저한 희극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한다.¹⁴⁾ 이러한 특징 때문에 꿈은 루쉰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지(主旨)와 정서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라비지는 “상상 속의 이미지와 감각은 외부세계에서 입력되고 있는 실제 감각 정보와 서로 경쟁해야하므로 질적인 면에서 실제 정보보다 뚜렷하지 않은 한편, 꿈은 뇌가 내부에서 생성된 신호들만 가지고 작업을 하므로 다른 방해가 없어서, 꿈에서 얻은 정보들은 상상보다 더 현실감이 있다.”¹⁵⁾고 주장했는데, 이 말은 루쉰이 깨어있을 때 상상하는 내용보다 꿈에서 본 광경이 더욱 현실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까닭에 꿈이란 형식을 채택하면 시에 한층 더 진정성과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국은 자고로 언론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문학창작을 할 때 정부의 검열과 필화를 피하기 위해서 문필가들이 본인의 글에 담긴 견해를 부드럽게 하거나 왜곡하는 전통이 존재했다. 꿈은 왜곡의 과정을 겪고, 무의식 속의 생

10)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정명진 역, 앞의 책, 255쪽.

11) G. William Domhoff 저, 유미숙 등 역, 앞의 책, 44쪽.

12)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홍성표 역, 앞의 책, 37쪽.

13)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 역, 『루쉰』,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79쪽.

14)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홍성표 역, 앞의 책, 37쪽.

15) 스티븐 라비지 저, 이경식 역, 앞의 책, 5쪽.

각들이 위장을 한 채 꿈의 내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¹⁶⁾ 꿈을 글짓기에 사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루선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렘수면 상태에서 육체가 무력해진다고 언급했었는데, 육체가 무력해지면 꿈꾸는 사람은 꿈속에서 빨리 달리지 못하고 높이 못 뛰며, 싸울 때는 주먹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꿈 자체가 육체적 무력감이라는 기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담한 사회현실, 그리고 직면했던 수많은 딜레마로 인해 무력감을 느꼈던 루선에게 있어서, 꿈은 정신적 무력감과 직결된 내용을 실을 최적화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3. 꿈속 상징 분석

1) 자아성찰과 죄의식

지금부터 여덟 편의 시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시들은 모두 “나는 꿈속에서 자신이(我夢見自己)¹⁷⁾……”라는 표현처럼, 화자가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이 꿈들이 모두 자각몽(루시드 드림, lucid dream), 즉 꿈속에서 경험한 세상이 자기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꿈¹⁸⁾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자각몽에 대해 다마시오는 “사람에게 핵심 의식과 자서전적 자기를 부여하는 상위의 신경 양상이 평소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서 나타난 꿈 상태의 산물”¹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시들은 사실상 꿈이란 방식으로 만들어진 루선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고, 꿈속에서의 체험은 루선의 자아성찰 과정을 상

16)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정명진 역, 앞의 책, 256쪽.

17) 본고에서 인용한 『야초』의 원문은 모두 『魯迅全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의 판본을 참고하였다.

18) 스티븐 라비지 저, 이경식 역, 앞의 책, 16쪽.

19) G. William Domhoff 저, 유미숙 등 역, 앞의 책, 22쪽.

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먼저 「개의 반박」이란 시를 살펴보자. 애크로이드에 따르면, 꿈속에 등장하는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동물적인” 본성을 상징하거나, 꿈을 꾸는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성격을 표현한다고 한다.²⁰⁾ 「개의 반박」에서 화자는 길가에서 짓는 개를 “권력이나 재물만 보면 영켜 붙는 놈”(你這勢利的狗)²¹⁾이라며 질책했으므로, 이 시 속의 개 역시 애크로이드의 관점으로 먹이 주는 사람에게 빌붙거나 주인 믿고 호가호위하는 본성을 지닌 개처럼, 금력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개의 처신 방식을 멸시하였으므로, 화자는 헤어진 옷을 입고 찢겨진 신발을 신은 거지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상하관계를 정하여 개한테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개는 화자에게 인간은 갑을 관계를 정하여 그때그때 태도를 바꿔서 이익을 취할 정도로 교활하고, 우열과 귀천을 세세히 구분하여 약자를 억압하므로 개만도 못하다며 논박하였다. 정곡을 찢린 화자는 부끄러운 나머지 개를 돌아보지 않고 꿈밖으로 도망을 쳤다. 개와 그보다 더한 인간의 습성이 루쉰 시대의 인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쫓는 강약약강(強弱弱強)인 인간사회를 향한 루쉰의 혐오와 규탄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도망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 역시 스스로를 추악한 인간 중 한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루쉰은 개와의 논쟁이란 형식으로 진행된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 또한 당시의 부패한 사회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던 가치관과 기준, 그리고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꿈속에서의 자아성찰과 그에서 도출된 인간으로서의 죄의식은 「잃어버린 좋은 지옥」에서도 이어진다. 이 시의 화자는 꿈을 꾸었는데, 길으로는 평화롭고 질서 있어 보이는 지옥 근처에서 마귀를 만났다. 이 마귀는 마치 그 본

20) 애릭 애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105쪽.

21) 루쉰 저, 김원중 옮김, 『野草』, 서울: 을유문화사, 2010, 93쪽.

성을 감추려는 듯 빼어난 외모와 자애로운 미소, 그리고 찬란한 광채로 치장되어 있었다. 마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천국과 지옥, 인간, 위세, 그리고 권력을 모두 손에 넣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 역할을 점차 상실하던 지옥에서 고문이라 하기에는 시시한 고문을 받던 혼귀(魂鬼)들은 만다라 꽃을 발견하게 된다. 심리학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신, 혹은 근본적인 질서의 상징”²²⁾으로 해석되는 만다라 꽃을 본 혼귀들은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삶을 살던 과거의 자신들과, 지옥에 비해 질서 있어 보이는 인간 세상을 떠올렸다. 마침내 그들은 지옥을 거부했고 인간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인간들은 혼귀들의 호소에 응하여 “의”(義)라는 깃발을 세우고 마귀들과 싸워 마귀들을 지옥으로부터 쫓아냈다. 그러나 처지가 별로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혼귀들은 인류를 비판했는데, 그 결과, 인간들은 혼귀들에게 명실상부의 고문을 가했으며, 지옥은 이름에 걸맞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정리하자면, 지옥의 주인은 “신에서 마귀,” 다시 “마귀에서 인간”의 순서로 바뀌는데, 혼귀들의 처지는 지배자의 변경에 따라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마귀보다 더욱 잔학한 인간의 지배 하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했다. 결국 지옥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혼귀들은 고통 받을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혼귀들은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중국의 민중을 연상시키고, 자신의 통치를 미화하고 정당화했던 마귀와, 그를 몰아내고 새로운 억압을 가했던 인간들의 모습은 즉위를 위해 달콤한 이상과 대의를 내세워 민중을 이용하고, 군사력으로 구정권을 전복시킨 뒤 새로운 봉건 국가를 세워 민중을 재차 핍박하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어떤 통치 하에서도 확대받던 혼귀들이 느끼는 무력감에는 민초들의 불행하고 불합리적인 처지에 대한 루센의 동정과, 사회에 대한 원망, 그리고 타인을 선동하고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위선의 무리를 향한 분노가 담겨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에서 마귀는 화자 역시 인간이라고 판단하는데, 화자를 가증스러운 인간에 귀속시킨 점과, 꿈속의 마귀는 과거에 죄책감 때문에 억압했던 무의식의

22) 에릭 에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194쪽.

내용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심리학 관점은,²³⁾ 이 시에도 루쉰의 죄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마귀가 전술한 지옥 이야기란 형식으로 자아를 성찰한 결과, 루쉰은 자신 역시 중국의 유구한 지배의 역사와 전통을 합리화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정치와 권력이 없던 혁명의 당사자로서, 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민중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간, 그중에서도 문학가로서의 죄의식을 담은 자아성찰의 꿈을 보도록 하겠다. 「논점을 세우다」에서 화자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교사한테 논점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꿈속에 등장하는 교사는 지혜, 또는 진정한 자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노인의 형상을 의미하는데,²⁴⁾ 이곳에서는 루쉰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 그리고 진정한 자신에 대한 루쉰의 성찰을 모두 상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는 화자에게 논점 세우기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이하와 같은 예를 들었다. 사내아이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한 축객들 중에서 두 사람이 아이가 장래에 돈을 많이 벌거나 벼슬을 할 것 같다고 덕담을 해주었고, 둘 다 아이 부모의 감사의 말을 들었다. 이와 반대로 세 번째 사람은 아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이실직고했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몽둥이질을 받았다. 화자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싫고 공격받는 것도 싫다면 어떻게 논점을 세워야 하는지 묻자, 교사는 “와! 이 아이는 정말! 보세요! 얼마나 …… 아이고! 하하하!”(啊呀! 這孩子呵! 您瞧! 多么……. 阿唷! 哈哈!)처럼 의미 없는 허사(虛辭)나 어기사(語氣辭)를 남발하며 웃을 수밖에 없다고 알려 주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성실함과 보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무언에 가까운 태도를 고수하며 허탈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루쉰의 서술에서 그의

23) 에릭 애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190쪽.

24) 위의 책, 124쪽.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무력감을 낳은 사회, 즉 논점 세우기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사회에 대한 루쉰의 불만과 원망을 이 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루쉰은 무언의 방관자다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망과 규탄의 마음도 품었을 것이다. 둘째, 인간사회에서 논점을 세우거나 주장을 펼치는 행위는 도덕적, 문화적, 그리고 전통적인 장치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실의 전달을 피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언어적 편향이 존재한다. 이는 루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항상 암담한 사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글쓰기와, 사회의 진면모를 제대로 인지한 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염려하여 거짓말을 하는 글쓰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방향했다. 때로는 부득이하게 거짓을 섞어 현실을 포장하는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교사와의 문답이란 형태를 취한 자아성찰의 꿈은 글로써 투쟁을 했던 루쉰이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딜레마와, 쉽게 취사선택할 수 없는 주저함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택했을 시에 뒤따르는 죄의식이 모두 구현된 것이다.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루쉰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정을 갖고 있던 동지와 기대를 품고 지도했던 후배 지식인들에게 배신당하고 공격받았던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상징하는 듯한 꿈을 「무너진 선의 전율」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꿈속에서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치욕 등으로 가득한 생활을 견디며, 몸을 팔아서 헌신적으로 딸을 키우는 여인을 발견했다. 본인보다 자식을 더 걱정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목도하던 화자는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난 파도에 삼켜져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물속에 가라앉는 것은 우울한 상태나 절망 혹은 궁지에 빠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²⁵⁾ 아니나 다를까 여인이 고생하는 우울한 광경을 보았던 화자는 파도에서 벗어나 눈을 뜬 후 더욱 절망적인 정황을 직시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25) 에릭 에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99쪽.

여인은 연로하고 병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여인의 딸은 여인의 사위, 그리고 여인의 손주들과 결탁하여 본인들이 여전히 곤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모두 여인의 탓이라며 그녀를 비난, 원망, 그리고 멸시했다. 심지어 여인은 손주로부터 “죽여라!”(殺!)라는 위협까지 받게 된다. 배은망덕하고 패륜을 저지르는 가족들에 대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부들부들 떨다가, 조소와 욕설을 등진 채 어두운 밖으로 나가, 인적이 없는 황야에 이르렀다. 꿈속에서 황야를 본 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의 관습들이나 자아가 만들어낸 금기들을 던져버리는 행위의 상징으로 풀이한다.²⁶⁾ 나체가 되는 행위와 더불어 늙은 여인은 여태껏 자신을 속박했던 사회적, 윤리적, 전통적, 도덕적, 문화적 족쇄를 모두 벗어던졌다. 우뚝 선 그녀의 뇌리에는 지난날에 겪었던 굶주림, 고통, 치욕, 고생, 울분,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준 가족의 저주, 유기, 배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호소할 곳 없는 억울함, 알아 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 그리고 어찌할 도리 없는 무력감에 의해 감정이 극에 달한 그녀는 두 손을 치켜들고 경련을 일으키며 말이 아닌 말을 내뱉었다. 그 전율은 물고기의 비늘조각처럼 반짝여 거룩해 보였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의미 불명의 말은 가위에 눌린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내는 신음소리를 연상시켜, 그녀의 무력감을 독자들에게 절감시킨다.

자식에게 정성을 다 바쳤으나 끝내 배신당한 여인의 모습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호적으로 대했던 일부 지식인들에게 배신당했던 루쉰과 겹치는데, 그러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행한 루쉰의 자아성찰을 형상화한 것이 「무너진 선의 전율」에서 서사하고 있는 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여인의 정서는 동료들과 후배들을 변절시킨 사회와 그에 얽힌 이념, 그리고 특정 세력에 대한 루쉰의 원망과 증오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곳은 루쉰이 스스로를 더럽고 비천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매춘부에 비유했다는 점이다. 자식을 양육했던 여인이 결코 깨끗하고 떳떳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봉사하고 투쟁했지만, 본인 역시 단편 소설 『광인

26) 에릭 에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184쪽.

일기(狂人日記)』에 등장하는 광인처럼 “식인(食人)”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루쉰은 자신을 평가했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자기 비하적인 비유를 한 것이다. 또한, 반짝이며 전율하던 여인의 거룩한 모습은 창녀의 신분이었으나 자신과 타인을 구원함으로써 성인의 반열에 오른 기독교 신화의 막달레나 마리아와 통하는 바가 있다. 이는 곧 창녀 출신의 성녀처럼 본인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 분투하겠다는 루쉰의 숭고한 의지가 해당 비유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가슴을 누르고 있던 현실의 손이 꿈속에 반영돼 가위에 눌리게 되는데, 자신의 손으로 악몽과 가위눌림을 자초했다는 서술 역시 이러한 죄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위눌림에서 벗어나고자 온 힘을 다해 가슴에서 손을 옮기려는 화자의 모습과, 평원에서 하늘을 향해 신음하고 전율하던 여인의 모습에는 현실 속 루쉰의 “쟁쟁”(掙扎, 몸부림)도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2) 속죄를 위한 적과의 동귀어진

자아성찰의 과정을 따라 점점 깊어져 가는 죄책감에 고통 받던 루쉰은 속죄를 하기 위해 그의 적, 즉 봉건주의를 비롯한 구시대의 어둠과의 동귀어진(同歸於盡)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의는 「그림자의 작별」과 「죽은 불」, 그리고 「묘지명」에서 살필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이 잠을 자거나 꿈을 꿀 때 유체이탈을 한다고 믿었는데, 「그림자의 작별」에서는 영혼 대신 그림자가 몸을 떠나는 정황을 서술하고 있다. 카를 융은 꿈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을 자기실현과 인격 발달을 의미하는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림자는 정신의 “어두운” 측면이거나 성격의 “원시적인” 혹은 “부정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²⁷⁾ 다시 말해서 꿈속에서 이루어진 그림자와의 만남은 부정적인 자신의 일면을 성찰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시의 내용에 근거하면, 「그

27) 에릭 에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71-72쪽.

림자의 작별」에서는 용과 반대로 자고 있는 그림자의 주인이 루선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그림자가 이 시의 1인칭 화자이기 때문에 자기성찰의 주체인 루선을 상징하게 된 것이므로, 용의 견해와는 상충되지 않는다. 그림자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자아성찰은 그림자의 독백으로 진행되었는데, 주인과 함께 보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림자는 고향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토로하였다. 그림자는 주인을 따라 “밝음과 어둠” 그리고 “황혼과 동틀 무렵” 사이에서 방황했었다 (밝음과 어둠, 황혼과 여명 그 어느 한 측도 선택하지 않은 중간물과도 같은 그림자에는 구시대와 신시대의 교량역을 자처했던 루선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희망을 갖고 투쟁했으나 적대 세력의 핍박과 저해로 인해 끊임없이 절망을 맛보았던 루선의 처지도 투영되어 있고, 어두운 현실과 지향하는 미래 사이에서 방황했던 루선의 딜레마도 투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암흑 속에서는 어둠에 삼켜지고, 햇빛이 너무 밝으면 사라진다. 따라서 이와 동형구조를 이루는 혼귀(魂鬼)들이 고통 받는 지옥과 부패한 사회,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치장된 이상과도 같은 “천국”이나 “황금세계”를 그림자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방황의 삶을 거절하고 주인 곁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림자와의 만남에 대한 꿈은 회심 또는 회개의 주제가 많이 들어 있다”²⁸⁾는 것이 심리학 측의 주장인데, 이는 「그림자의 작별」에도 적용된다. 이론(異論) 없이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방했던 그림자는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당신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싫어하는 사람”²⁹⁾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희망과 절망,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망설이던 자신과, 중국 수 천 년의 식인 전통을 계승한 죄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루선의 자기혐오를 나타낸 것이다. 주인과 과거의 자신을 부정한 그림자는 회개와 속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 “그 어둠속에는 다른 그림자도 없고, 오직 나만이 어둠 속에 잠겨

28) 에릭 애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73쪽.

29) 루선 저, 김원중 옮김, 앞의 책, 27쪽.

려 한다.”(再沒有別的影在黑暗里, 只有我被黑暗沉沒.)³⁰⁾ 이것은 그림자로 대변되는 루쉰이 타인과 그들의 그림자들이 빛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홀로 어둠을 끌어안고 같이 소멸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민중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고 본인은 구사회의 어둠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다는 속죄의식과 희생정신의 발현이다.

「죽은 불」에서 화자는 꿈속에서 얼음에 뒤덮인 산을 뛰어다니다가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얼어붙어 죽은 불을 발견하게 된다. 화자의 온기를 받아 죽은 불은 되살아났고, 인간에 의해 계곡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중국 문명의 개척자로 전해지는 삼황(三皇) 중 한명인 수인(燧人)이 불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후인들에게 오래오래 칭송되듯이, 어둠을 밝히고 취사(炊事)에 변혁을 초래한 불은 인류 진화와 문명 발전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꽃을 인류가 스스로 유기하고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서술은, 퇴행을 자처할 정도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인류에 대한 탄식을 부르며, 빙하기와 같은 얼음산의 혹독한 환경은 온정과 활력을 상실하고 쇠퇴한 루쉰 시대의 중국 사회를 연상시킨다. 부활한 불꽃은 자신의 생명을 다 불태워서라도 다시 한 번 인간 사회에 빛과 온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화자에게 밝혔는데, 이에서 불꽃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살필 수 있다. 하지만 불꽃과 함께 계곡에서 탈출한 화자는 돌연 나타난 돌 수레에 깔려 죽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수레는 얼음 계곡 속으로 추락하였다. 탈출한 불꽃이 세상을 불태워 얼음을 녹일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화자는 웃으며 꿈속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에크로이드는 꿈속에 출현한 불은 주로 열정, 혹은 진리와 자기인식을 상징하고,³¹⁾ 얼음은 얼어버린 감정, 즉 죄책감으로 인해 마비된 감정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³²⁾ 그러므로 빙하시대와 같은 꿈속 환경은 진리를 버린 냉혹한 사회를 반영하는 동시에, 죄책감으로 인해 마비되어 있던 루쉰의 심리상태

30) 루쉰 저, 김원중 옮김, 앞의 책, 30쪽.

31) 에릭 에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228-229쪽.

32) 위의 책, 293쪽.

도 상징한다. 화자는 얼어있던 불꽃, 즉 식어있던 자신의 열정을 마주함으로써 자아성찰의 작업을 수행했고, 자신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는데 성공했다. 본인의 꿈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력해보이지만, 돌 수레와 같이 소멸하여 불꽃을 인간세상으로 돌려보냈다는 결말에서 혁명의 걸음을 가로막는 적대세력과 함께 없어지겠다는 루신의 속죄의식, 그리고 자신의 희생으로 동지들의 마음속에 항쟁의 불을 지피겠다는 루신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열정"은 영어에서 "passion"이라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수난"이란 의미로도 사용되며, 이는 예수가 갓은 고문을 견디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를 대신해 속죄한 과정을 가리킨다. 게다가 루선은 『야초』에 실린 「복수 2(復仇 其二)」란 작품에서도 예수의 수난 장면을 구현하고, 예수란 인물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대변인으로 삼았다. 고로, 루선이 이 시에서도 "열정"과 "수난," 그리고 "속죄"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불"이란 이미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묘지명」은 한 황폐한 무덤을 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화자는 무덤에서 심장과 간이 없는 주검 한 구를 발견하게 된다. 무덤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었고, 묘비 앞뒤에 묘지명이 새겨져 있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무덤의 주인은 생전에 열정을 갖고 항쟁하던 중에 병에 걸렸고, 희망을 지녔던 그였지만 심연에 떨어진 듯한 좌절을 겪었다. 그는 뜻을 같이 했던 전우들의 눈에서도 절망을 보았다. 절망감과 허망감에 그는 독사로 변해 자신의 몸을 물어뜯었는데, 죽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다. 하지만 죽어서도 좀비가 된 그는 자신이 과거에 품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낳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심간을 파내어 맛을 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심리학 관점으로 보면, 꿈속에서 죽어 매장되는 것은 옛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자신의 부활, 즉 자신의 재건을 상징하고,³³⁾ 무덤과 그곳에서 썩어 가는 시체는 새로운 자신을 위한 거름의 역할을 하며,³⁴⁾ 무덤에서 파내진 시체는

33) 에릭 에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198쪽.

지금까지 무의식에 매장시켜져 있던 것이 의식 속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³⁵⁾ 이러한 시각을 참고하여 해몽을 하자면, 무덤에서 파내어져 있는 시체를 만난 것은 루선이 억눌러왔던 허무와 절망, 회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자신과 대면한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루선이 꿈속에서 본 무덤과 시체는 자아성찰과 자아비판이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점을 독사가 되어 자신을 물어죽이고, 좀비가 되어 심간을 파먹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꿈속에서 뱀은 악의 원천을 상징한다.³⁶⁾ 게다가 뱀은 기독교 신화에서도 인류에게 원죄를 짊어지게 만든 원흉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뱀이 되어 자신을 물고, 자신의 심간을 도려냈다는 표현에서 루선의 죄의식과 자기혐오, 심지어 자기학대의 모습을 살필 수 있고, 루선이 자신을 허무와 절망, 회의, 그리고 봉건 전통 등의 독소에 중독된 죄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죽어서도 성불하지 못하고 장기를 곱씹는 행위는 루선의 방황과 “짱짜”를 상징하기도 한다. 루선은 문미에서 “내가 먼지로 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는 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이요!”(待我成塵時, 你將見我的微笑)³⁷⁾라는 시체의 말을 빌려, 새로운 세대의 거름이 되기 위해 구시대의 독을 끌어안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즉 최종적으로는 후대들에게 망각되길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표출했다. 화자는 시체가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을 쳤는데, 이는 자신과의 고별이자 신세대를 향한 루선의 작별이다.

3) 흔들리는 속죄의식

이와 같이 앞 세 수의 시에서 루선은 아랫세대를 위해 적과 함께 사라지겠

34) 에릭 애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400쪽.

35) 위의 책, 216쪽.

36) 위의 책, 221쪽.

37) 루선 저, 김원중 옮김, 앞의 책, 105쪽.

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그러나 「죽은 후」란 시를 감상해보면 루쉰의 속죄의 결의가 결코 확고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신경은 멀쩡하지만 지각이 마비되어 각성하지 못한 민중과 반대로, 「죽은 후」의 화자는 운동신경이 사라졌으나 지각이 여전히 활발한 사자(死者)이고, 이 사자가 사후세계에서 보고 들은 바가 바로 루쉰이 꾸는 꿈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루쉰은 화자의 시체에 대한 행인들의 불평, 벌레의 괴롭힘, 장의사의 불친절, 상인의 관측행위 등을 묘사하였는데, 그로써 당시 중국의 사회상과 인간상을 폭로하였다: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화자의 시체를 구경거리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흥,” “쳇”이라 하며 동정은커녕 마치 길가의 오물을 대하는 듯 신경질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그들이 거리낌 없이 화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죽은 자는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개미와 파리가 화자의 시체에 달라붙어 그의 몸을 핥고 빨며 지각이 있는 화자를 괴롭혔다. 이들은 타인의 죽음을 논의거리나 선동의 도구로 삼았던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처럼 죽은 자의 사체조차 이용하였다. 벌레들 뒤에는 장의사가 찾아왔는데, 화자의 수의(壽衣)도 제대로 정돈시켜주지 않고, 허술하게 관에 못 두개를 대충 박은 후 화자를 방치하였다. 그 역시 사자에 대해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서점 직원이 화자에게 책을 팔아 이익을 취하려 했다. 그가 판매하는 책은 전통 문화의 산물인 『공양전(公羊傳)』으로, 사자에게조차 봉건사상을 주입하려는 시도에서 봉건예교가 중국 사회에 초래한 폐해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루쉰이 묘사한 꿈속의 사회는 인간으로부터 마음대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거짓이 만연하며, 시체조차 이용하고 착취하는 절망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죽음을 조우하는 꿈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옛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무거운 짐, 즉 죄책감과 순교 콤플렉스, 또는 스스로 만들어

넌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라 한다. 또한, 여기서 “옛 자신”은 구태의연한 집착, 습관,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³⁸⁾ 이 이론에서 언급된 상징들에 대응하는 표현들은 루쉰의 꿈속에서 모두 찾아 낼 수 있다. 시가 끝을 맺기 직전까지 미동도 못했던 화자의 모습과 마음대로 죽을 권리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감상은 사회와 적의 압박으로 인해 루쉰이 느꼈던 무력감과 상응한다. 그리고 화자가 시체로서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외적인 자극들은 루쉰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 즉 당시사회에 전해지던 가치관과 전통, 그리고 잔혹한 현실을 비유한 것이다. 본인의 시체가 길 가에 함부로 버려지고, 온당한 장례조차 누리지 못하며, 죽은 뒤에도 고통 받는 식의 자기대우에서 루쉰의 죄책감을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죄책감과 더불어, 「그림자의 작별」·「죽은 불」·「묘지명」에서 드러난 적과의 동반 소멸을 통해 후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순교자적 의식, 그리고 허무 및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깨끗이 털어내고 자신을 해방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을 꿴다는 것은 앞의 시들에서 보여준 비장한 태도와 모순되며, 이는 루쉰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중국과 민초를 위한 순교자적 최후에 주저했거나 방황과 “쨍짜”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4.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꿈은 시처럼 고도로 상징적인, 그리고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루쉰의 장기인 풍자와 유머를 내포하고 있으며, 작가의 감정과 사상을 심화시켜 현실감 있는 정경에 투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꿈은 왜곡 과정을 겪고, 꿈꾸는 주체의 육체적 무력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검열과 필화를 피하는 도구이자 꿈속 인물의 정신적 무력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안성맞춤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꿈의 특징, 그리

38) 에릭 애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앞의 책, 341쪽.

고 창작 취지와와의 적합성, 아울러 실제로 꿈을 썼을 가능성 때문에, 루선이 『야초』에 실린 시들을 지을 때 꿈이라는 형태도 사용했던 것이라는 추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루선이 의도적으로 꿈이라는 형식을 선택하여 담아낸 이미지와 상징들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 시들에는 민중이 억압 받고 정의가 변질되며, 이익이 우선시되는 등의 추악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과 그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라는 일차적인 주제 이외에도, 자아성찰을 통한 죄의 인지와 그에 따른 죄책감이라는 핵심주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루선은 꿈속에서 자아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정시(正視)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지식인, 그리고 식인 전통의 계승인으로서의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죄의식은 내적 갈등과 외적 압박으로 인한 방황과 “짹짜”를 거쳐 한 단계 나아가 속죄의식으로 나타나는데, 루선은 개혁을 막는 세력과 그들의 창궐을 옹호하는 구 사회와 함께 사라짐으로써 자신의 죄를 만회하고자 했다. 비유하자면, 죄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다음 세대를 새로운 중국으로 이끌지만, 정작 본인은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순교자다운 길을 택한 것으로, 이로써 이 꿈 관련 시들은 다케우치가 정의한 것처럼 “속죄의 문학”이 되었다.³⁹⁾ 그러나 루선의 끝나지 않은 방황과 긴장도 높은 “짹짜”, 그리고 결심의 동요를 암시하듯이 속죄의 중임에서 풀려나고 싶어 하는 의사도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태도의 변화 혹은 모순은 루선의 꿈속 이미지가 복수(複數)의 의미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더불어, “모순”과 “혼돈”이라는 루선의 본질⁴⁰⁾에 들어맞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루선이 “무질서”를 기본 성질로 삼는 꿈이란 매체를 빌려 시를 지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준다.

본고에서 진행된 『야초』의 시 분석은 심리학의 꿈 이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이론에 어긋나는 내용과 루선 특유의 필력을 다 담아내지 못할

39)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 역, 앞의 책, 55쪽.

40) 위의 책, 16쪽.

엄려도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심리학 이론에 의거한 고찰이 루쉰의 글에서 “자아반성”과 “회심,” 그리고 “속죄” 등의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와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야초』의 꿈들이 실제 꿈에 근접하고 루쉰이 꿈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정도로 치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루쉰의 글에 대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또는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문학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루쉰의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길 기대한다.

參考文獻

- 고점복, 「告白과 글쓰기의 모험--루쉰(魯迅)의 《野草》와 문학 언어의 내면화 전략」, 『중국어문논총』, 75집, 2016.
-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 역, 『루쉰』,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루쉰 저, 김원중 옮김, 『野草』, 서울: 을유문화사, 2010.
- 스티븐 라버지 저, 이경식 역, 『루시드 드림: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스런 꿈꾸기』, 서울: 북센스, 2008.
- 에릭 애크로이드 저, 김병준 역, 『꿈 상징 사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조지 윌리엄 돔호프 저, 유미숙 역, 『꿈의 과학적 탐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1.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기태 역, 『꿈의 해석』, 서울: 선영사, 2005.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정명진 역, 『꿈의 심리학』, 서울: 부글북스, 2017.
- 蔡家俊, 「『野草』中夢的類型與內涵」, 『宿州教育學院學報』, 20권 2호, 2017.
- 海萍麗, 「黑暗中的顛覆與狂歡--試析魯迅『野草』中的夢」, 『河南教育學院學報』, 25권 6호, 2006.
- 韓冰, 「夢與醉的黑暗世界--論『野草』」, 『滁州學院學報』, 15권 4호, 2013.
- 劉秀芳, 「論魯迅『野草』中的夢」, 『湖北科技學院學報』, 35권 7호, 2015.
- 『魯迅全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許霆, 「魯迅『野草』說夢詩的構夢特色」, 『九江師專學報』, 2호, 1986.
- 張潔宇, 『獨醒者與他的燈: 魯迅『野草』細讀與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3.

Abstract

A Psychological Study on *Wild Grass*' Symbols in Dreams

Kim, Dong Jin

This paper focuses its analysis on the dream related poems included in *Wild Grass (Yecao)*, Lu Xun's prose poem anthology. To start with, it studies Lu Xun's purposes and reasons for choosing the medium called "dream" when composing poems in *Wild Grass* by scrutinizing the similarities between dreams and poems, and the effects that can be derived when Lu Xun's ideas are conveyed through the form of dreams. On top of this, this paper also interprets the content of *Wild Grass*' dreams and the meanings of symbols and images inside them by referring to psychological dream theories. Although literary reading on these poems may only lead to finding the superficial messages contained in Lu Xun's dreams, such as Lu Xun's criticism on hostile forces and the sordid social aspect or human images of that time, it is possible to discover Lu Xun's self-examination, his sense of guilt, and his resolution for atonement, which are the key ideas of Lu Xun's writings, based on dream theories. To be specific, due to government's oppression of free speech, and his concern over the shock readers might get af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the Chinese society via reading his works, Lu Xun was obliged to tell lies in his writings. He felt guilty for this behavior and also for succeeding the feudal traditions and cultures of China. Therefore, he wandered and struggled while suffering from his guilt feeling. Eventually, he decided to expiate his guilt by vanishing with the old society and power that prevented China from being reformed. However, it was also shown from his poems that his resolution was not determined enough, that his hesitation and struggle were still not over, that he wanted to relieve himself of his heavy responsibility. Nevertheless, this inconsistent attitude of Lu Xun was merely a natural result of Lu Xun's essence: "chaos" and "contradiction", and it also explained why Lu Xun picked the form of dream, whose basic feature was disorder, to deliver his

thoughts. As such, this study not only proves that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Wild Grass*' dream related poems helps readers detect crucial concepts like "self-reflection," "convincement," and "penance" that define Lu Xun, but also proves that it is feasible and meaningful to carry out interdisciplinary or transdisciplinary research on Lu Xun's writings.

Key words: Wild Grass, Lu Xun, atonement, psychology, dream, guilt

투고일: 2021. 1. 10. / 심사일: 2021. 1. 15.~ 2021. 2. 15. / 게재확정일: 2021. 2. 20.

